

본문: 출애굽기 12:21~28

제목: 오늘 지키는 유월절 규례

1. 유월절의 어린 양

각 나라와 민족은 그들의 전통과 삶을 따라 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24개 절기는 기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절기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유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일을 규례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선 1~14절에서 그 규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잡을 것,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것, 고기의 뼈를 깎지 말고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먹을 것, 바로 나갈 채비를하고 급하게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할례 받은 자들이 지켜야 했습니다.(43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규례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심으로 장자가 죽었습니다. 단,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심으로(逾越)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죽음이 없었던 집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처음 난 것이 죽고, 어떤 집에서는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모든 집에 동일하게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당장은 숨 쉬고 먹고 살아있는 것 처럼 보이나, 실상은 모두가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가셨습니다. 바로, 신약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월절 사건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 중에 잔을 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사람들에게 잡히시어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나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자들이 다리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만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에 대해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듯, 예수의 언약의 피를 몸에 바른 자들을 죽음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은 집을 넘어가시듯,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자들을 넘어가셨습니다.

2. 유월절의 규례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을 지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л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구운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니까? 2천여년 전 어린 양처럼 잡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잡히시는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유월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과 느낌만이 아닙니다. 오래참고, 온유하고,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거나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의 할례받은 자,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렇기에 이후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듯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에 힘쓰는 자들 되여지기 바랍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서로 사랑함으로 영적 유월절을 지키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이엠, 송병현 지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희권 지음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엮음

본문: 출애굽기 20:1~17

제목: 사랑의 십계명

1. 사랑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지킬 필요가 없는 구약 시대의 잔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지금의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시내산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필두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셨습니다.(19:5~6) 그리고 이 언약에는 율법의 준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준비시키신 후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육성으로 오늘 본문의 십계명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이 언약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종 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 10가지 재앙과 홍해도하 사건 이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모세를 부르실 때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3:7, 10) 그렇기에 이 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으로 이 계명과 언약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결국 관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요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조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5~6절) 그리고 이 사랑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의 시험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마 22:35~40)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새로운 계명

이 사랑에 대한 요구는 신약에서 이르러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 보내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과 방향, 어떤 선택의 토대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미 임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방식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말

씀하십니다. “사랑” 부디,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사랑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사랑을 실천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갑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이엠, 송병현 지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회권 지음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엮음

『출애굽기 산책』 솔로몬, 박철현 지음

본문: 출애굽기 24:1~11

제목: 혼인잔치

1. 하나님과 백성들의 결혼식

결혼은 그저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지난 20~30년간 각자의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해오던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의 습관을 서로에게 맞춰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전의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며,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결혼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에 앞선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며 백성들에게 들려주자 백성들은 그 율법을 준행 하겠다고 거듭 선언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 기둥을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 제물의 피를 받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제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뵈며 함께 먹고 마시는 연회를 열어 이 결혼식을, 언약체결식을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25장 부터 결혼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신혼집,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결혼식, 언약식의 하이라이트는 피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각각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의 “세우다”는 히브리어로 “קָנָה”로 “자르다”, 혹은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과 나라 간에 조약을 맺을 때 생명을 담보로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직역하자면 “언약을 쪼개다”라고 번역됩니다. 즉,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 언약식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율법 준수를 기준으로하는 이 언약이 파기된다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념으로 세운 12개의 돌 기둥이 증거가 되어 이 언약은 분명하고 또한 철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인 우상과 열방에게 의지하며 결국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처해야 했을 모습과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신랑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요청과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중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 예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말씀하신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 없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신혼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 새로운 결혼 서약서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했을 율법의 요청과 요구를 모두 이루신 예수께서 남겨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이전의 옛 계명과 다른 것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 앞 뒤에는 그 어떤 언약 파기에 따른 댓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다른 남편을 좇고 따르던 죽어버린 인생에게 찾아오시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도 안되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결혼 서약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결혼 서약서가 마음에 세겨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서약서에 묻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 봄으로 원수 마저도 사랑으로 품고 끌어 안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계명, 사랑을 지킵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이엠, 송병현 지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회권 지음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엮음

본문: 출애굽기 34:1~9

제목: 하나님의 이름

1.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본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은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모세의 중보로 이 마저도 돌이키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광을, 정확히는 등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파기로 깨진 십계명 돌판을 대신 할 새로운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언약을 갱신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여호와로 소개하시며,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출 6:2~7)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 5:10)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 동시에 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자손의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베푸심에는 천대까지, 죄의 보응은 삼사 대”라는 차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 5:10) 죄인 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죄에 대한 댓가를 아들에게 씌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이고 공짜이지만, 하나님께는 말도 안 되는 댓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2. 앞드려 경배하는 모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언약을 이루어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땅에 앞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풍성하고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모세는 백성의 목이 뻗뻗함과 악함과 죄를 고백하면서도 염치 없이 용서를 구하며 동행해달라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간구 이전에 경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앞서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간구보다 앞서 경배하며 예배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경배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이엠, 송병현 지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회권 지음

『출애굽기 산책』 솔로몬, 박철현 지음

본문: 출애굽기 40:34~38

제목: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1. 구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여러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성막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신혼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신혼집이 완성되었고, 신랑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상징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름을 계속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내산을 뒤 덮었던 구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직접 보았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압도적인 외경심(격리감)을 자아내기 때문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데, 백성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 하기에 하나님께서 해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레 1:1) 이후 레위기를 아우르는 개념은 “가까이 나아가다”(בָּרַךְ)로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롬 3:23)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בָּרַךְ”은 “예물”, 혹은 “예물을 가져오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예물을 가지고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례의 제물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철저히 위를 향합니다. 사람이 그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을 통해 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고사하고 의지조차 없기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지은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참된 임마누엘 성전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초차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불완전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히 10:4), 온전하고 완전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성막은 말 그대로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지만, 성막에 간혀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때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진영을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 임재의 장소인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이동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자신들을 호위하고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대의 성막은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 3:16)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약속대로 세상 끝날 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마 28:20) 성전이며 동시에 백성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부르시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막이 됩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희권 지음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엮음